

시키보 - 대학의 협력으로 꽃가루 방지 소재 개발

시키보는 “교린(杏林)”대학의 협력으로 상품화한 화분(花粉, 꽃가루)증(症) 대응천 “카운터페인(Counter pain) P”의 화분 알레르겐(Allergen,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흡착(吸着)능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삼(衫)나무 화분 알레르겐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이 알레르겐의 약 80%를 흡착하여 불활성화(不活性化)하였다고 한다.

“카운터페인 P”는 화분 알레르겐 배리어(barrier)성분인 미네랄(mineral)을 고착(固着)시키고 나노테크놀로지(nano technology)로 섬유위에 평활(平滑)한 화분부착방지 피막(皮膜)을 만들어 세탁내구성을 좋게 하였다. 그러므로 꽃가루가 잘 안붙고, 붙어도 잘 떨어지며, 그래도 붙어있는 꽃가루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이 피부에 접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 제품의 제조방법과 제품은 특허를 신청해 놓고 있다.

꽃가루의 부착을 방지하는 천은 다른 회사에서도 상품화하고 있는데, 꽃가루가 떨어진 다음까지 남아있는 꽃가루도 처리하는 제품은 없다. 꽃가루가 부착하는 양이 적더라도, 끝까지 남아 있는 꽃가루가 파괴되어 알레르기의 원인물질이 흘러나올 가능성은 있다. 시키보는 이 가능성을 극소화하여 “카운터페인 P”를 상품화하였다. 2004년 봄부터 “이불잇, 이불뒹개, 이불감” 등의 침구나 셔츠로서 판매대에 진열될 것이다. ♣